

신 · 재생 에너지 워크숍 9월 27-28일 개최

산업자원부는 9월 27-28일 2일간 <2006년 신·재생에너지 워크숍>을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해 신·재생 에너지 연구결과 및 학술논문 발표의 장을 마련하고, 신·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에 기여한 유공자 12명을 표창한다.

9월27일에는 <선진국의 상업화 성공경험과 해외동향> 등에 대한 특별강연이 있을 예정이며, 태양광분야의 전문가인 일본 오사카대의 Hamakawa 교수, 풍력분야의 영국 에딘버러대학의 Rebecca Barthelmie 교수, 연료전지분야의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에너지부의 Kazumi Tanimoto 박사가 참석한다.

9월28일에는 신·재생에너지 각 분야별로 논문 및 연구결과 발표 세션을 참관할 수 있으며, 태양광, 수소·연료전지, 풍력, 태양열, 바이오, 폐기물, 석탄이용, 소수력, 해양, 지열 등 총 10개분야에 60편의 논문이 발표되고, 아울러 산·학·연 관계자들의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.

워크숍은 1989년부터 시작돼 2006년 18회를 맞이하게 됐다.

<화학저널 2006/09/26>